1

Homework #0: 벡터와 행렬

Computer Graphics School of Software, Kookmin University

Abstract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물체의 위치(position)와 이동(translation)/회전(rotation)/확대축소(scaling)와 같은 변환(transformation)을 표현하기 위해, 벡터와 행렬 연산이 필수적이다. 본 과제에서는 벡터/행렬 연산이 간결하게 표현될 수 있는 벡터와 행렬 클래스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과제 소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물체의 위치(position)와 이동(translation)/회전(rotation)/확대축소(scaling)와 같은 변환(transformation)을 표현하기 위해, 벡터와 행렬 연산이 필수적이다.

본 과제에서는 OpenGL을 이용한 본격적인 컴퓨터 그래픽스 프로그래밍에 앞서 벡터/행렬 연산이 간결하게 표현될 수 있는 벡터와 행렬 클래스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raphics Processing Unit (GPU)로 대변되는 컴퓨터 그래픽카드의 주요기능 중하나는 벡터와 행렬 간의 연산을 고속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위한 프로그래밍의 기본은 벡터와 행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코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벡터와 행렬에 대한 자료가 효과적으로 GPU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

2 과제 목표

본 과제에서는 C++ 언어를 기반으로 벡터/행렬 연산이 간결하게 표현될 수 있는 벡터와 행렬 클래스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과제의 구현은 제공되는 *뼈대코드(skeleton codes)*를 기반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뼈대코드는 템플릿을 활용해 짜여진 벡터와 행렬 클래스 관련 파일들과 main.cpp 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파일은 가능하지만 기능구현이 되어 있지 않다.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템플릿 클래스를 완성하여, 벡터와 행렬 간의 연산이 C++ 언어의 연산자 오버로딩(operator overloading)으로 표현되어 있는 main.cpp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것이다.

열기준(Column-major) 행렬

본 과제에서 사용하는 OpenGL은 열기준(column-major) 행렬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4×4 행렬의 경우 다음과 같이 16개의 행렬 요소가 순차적으로 배열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M = \begin{bmatrix} m_{00} & m_{04} & m_{08} & m_{12} \\ m_{01} & m_{05} & m_{09} & m_{13} \\ m_{02} & m_{06} & m_{10} & m_{14} \\ m_{03} & m_{07} & m_{11} & m_{15} \end{bmatrix}$$
 (1)

본 과제에서 행렬 구현시에 열기준으로 행렬의 요소들이 저장되고 읽어오도록 해야한다.

JavaScript를 이용하는 경우

본 교과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웹브라우져에서 WebGL을 이용하여 과제와 프로젝트를 하려는 학생의 경우, JavaScript 언어 기반으로 구현하도록 한다. C++ 언어를 기반으로 제공된 뼈대코드와 함께, JavaScript 언어로 벡터와 행렬 기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glm-js사이트를 참고하여 과제를 진행하도록 한다.

3 과제 제출방법 (매우 중요!!!)

- 본 과제는 개인과제이며, 각자 자신의 코드를 완성하도록 한다.
- 3월 17일(금) 23시 59까지 가상대학에 업로드하도록 한다.
- 과제 코드는 Ubuntu 16.04 LTS 환경에서 make 명령으로 컴파일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과제 코드는 다음의 파일들은 하나의 압축파일로 묶어 tar.gz 파일 형식이나 표준 zip 파일 형식으로만 제출하도록 한다. 이때, 압축파일의 이름은 반드시 'OOOOOOOO_HW01.tar.gz (OOOOOOO은 자신의 학번)'과 같이 자신의 학번이 드러나도록 제출하다.
 - 1) 소스코드 및 리소스 파일들
 - 2) Makefile
- 과제에 관한 질문은 오피스아워를 활용하도록 한다. 교육조교(teaching assistant, TA)에게 메일로 약속시간을 정한 후, 교육조교가 있는 연구실로 방문하여 물어보는 것도 매우 권장하는 방법이다.